

| 이슈페이퍼 2023-01 |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최은영

1. 배경
  2. 영유아 가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3. 영유아 이용 기관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4.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 비교
  5. 제언
- 참고문헌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sup>1)</sup>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의 가정과 기관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원방식을 모색함<sup>1)</sup>.
- 팬데믹 기간(2020-2021) 중 긴급돌봄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 2세반과 만 5세반 모두 과반을 넘었는데, 만 2세반 영아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편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생활 변화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가 증가했고,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또래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중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응답됨.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성발달이 가장 낮았음.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 강화, 간편형 체크리스트(앱) 개발,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함.

1) 본 글은 최은영 등(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연구(1)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1)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여 가구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한 가구표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편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1

## 배경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COVID-19(이하 코로나19)는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질병관리청, 2021).
  - ◆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재난이 초래하는 결과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짐(질병관리청, 2021).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그리고 학습의 격차, 발달의 지연 등이 지적된 바 있음(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2020).
  - ◆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큰 상황임.
  - ◆ 팬데믹 기간 중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지고, 아동의 일상생활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및 부모, 가족과의 소통의 증가, 바깥놀이와 야외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는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좋아졌다는 긍정 경험과 나빠졌다는 부정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최윤경 외, 2020).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의 시행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됨(박미희, 2020).
  -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하

였다고 보고함.

- 장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음(Prime, Wade, & Browne, 2020).
  - ◆ 양신영(2021)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원장 및 교사의 71.6%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낮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힘.
-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
  - ◆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의식주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별가정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써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킴.
-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영유아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줌(Davies et al., 2021).
  - ◆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의 가정과 기관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원방식을 모색함.
  - ◆ 이를 위해 발달 검사를 수행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담임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팬데믹 전후의 가구와 기관의 주요 변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 2

## 영유아 가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 가. 팬데믹 기간 중 가구의 전반적 변화

-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은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 한편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했다(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전체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가구 총 소득	만 2세반	9.0	20.0	49.0	20.0	2.0	-	2.86	100.0 (100)
	만 5세반	6.0	12.0	64.0	15.0	3.0	-	2.97	100.0 (100)
가구 총 지출	만 2세반	2.0	16.0	26.0	41.0	15.0	-	3.51	100.0 (100)
	만 5세반	1.0	8.0	29.0	49.0	13.0	-	3.65	
자녀양육비 지출	만 2세반	2.0	4.0	42.0	37.0	15.0	-	3.59	100.0 (100)
	만 5세반	1.0	4.0	32.0	51.0	12.0	-	3.69	
사교육비 지출	만 2세반	2.0	5.0	56.0	26.0	11.0	-	3.39	100.0 (100)
	만 5세반	1.0	7.0	30.0	46.0	16.0	-	3.69	100.0 (100)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3.0	13.0	35.0	39.0	10.0	-	3.40	100.0 (100)
	만 5세반	4.0	6.0	58.0	22.0	10.0	-	3.28	100.0 (100)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	3.79	100.0 (100)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	3.83	100.0 (100)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만 2세반	1.0	2.0	28.0	48.0	21.0	-	3.86	100.0 (100)
	만 5세반	0.0	0.0	28.0	48.0	24.0	-	3.96	100.0 (100)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	2.73	100.0 (100)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	2.61	100.0 (100)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만 2세반	7.0	3.0	50.0	15.0	6.0	19.0	3.12	100.0 (100)
	만 5세반	9.0	12.0	49.0	21.0	3.0	6.0	2.97	100.0 (100)
학원 이용시간	만 2세반	6.0	4.0	51.0	14.0	5.0	20.0	3.10	100.0 (100)
	만 5세반	5.0	17.0	43.0	23.0	9.0	3.0	3.14	100.0 (100)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자녀의 수면 시간	만 2세반	3.0	22.0	68.0	7.0	0.0	-	2.79	100.0 (100)
	만 5세반	1.0	10.0	81.0	7.0	1.0	-	2.97	100.0 (100)
부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61.0	16.0	5.0	-	3.05	100.0 (100)
	만 5세반	1.0	11.0	72.0	12.0	4.0	-	3.07	100.0 (100)
모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50.0	11.0	6.0	15.0	3.02	100.0 (100)
	만 5세반	2.0	6.0	52.0	10.0	4.0	26.0	3.11	100.0 (100)

-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했다고 응답되었으며, 만 5세반 유아의 TV/미디어 이용시간도 72.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음.
  - ◆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2.0%)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 외벌이 가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만 2세반 66.7%, 만 5세반 65.5%).
  - ◆ 이는 팬데믹 기간 중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없는 비율이 높기(만 2세반 64.0%, 만 5세반 71%)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시기,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3.79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7.9	38.2	27.6	25.0	3.67	100.0 (76)
	외벌이	0.0	0.0	33.3	16.7	50.0	4.17	100.0 (24)
	<i>t</i>							-2.183*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3.83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4.2	42.3	32.4	3.70	100.0 (71)	
	외벌이	0.0	0.0	34.5	17.2	48.3	100.0 (29)	
<i>t</i>							-2.261*	

\*  $p < .05$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 다만,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1명인 가구보다 자녀의 야외활동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야외활동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2.73	100.0 (100)	
자녀수	1명	10.4	31.3	18.8	27.1	3.00	100.0 (48)	
	2명 이상	17.3	48.1	7.7	23.1	3.8	100.0 (52)	
<i>t</i>							2.1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2	39.5	14.5	23.7	9.2	2.76	100.0 (76)
	외벌이	16.7	41.7	8.3	29.2	4.2	2.63	100.0 (24)
<i>t</i>							0.484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2.61	100.0 (100)	
자녀수	1명	21.1	26.3	15.8	34.2	2.6	2.71	100.0 (38)
	2명 이상	21.0	33.9	17.7	24.2	3.2	2.55	100.0 (62)
<i>t</i>							0.6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5	23.9	15.5	35.2	2.8	2.72	100.0 (71)
	외벌이	17.2	48.3	20.7	10.3	3.4	2.34	100.0 (29)
<i>t</i>							1.565	

\*  $p < .05$

### 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돌봄서비스 이용

-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이용 33.0%, 가끔 이용 22.0% 순으로 나타남.
- ◆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긴급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외벌이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을 이용했다(가끔+많이)고 응답한 비율이 74.1%로 높았음.

〈표 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단위 : %(명)

구분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많이 이용하였다	계(명)	
<b>만 2세반</b>	45.0	22.0	33.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1	21.1	36.8	100.0 (76)
	외벌이	54.2	25.0	20.8	100.0 (24)
	$\chi^2$	2.135(2)			
	이용함	18.8	12.5	68.8	100.0 (16)
유연 근무제 이용	미이용	45.2	29.0	25.8	100.0 (31)
	제도없음+비해당	54.8	16.1	29.0	100.0 (31)
	$\chi^2$	11.167(4)*			
	이용함	50.0	13.3	36.7	100.0 (30)
재택근무 이용	미이용	47.4	26.3	26.3	100.0 (19)
	제도없음+비해당	34.5	24.1	41.4	100.0 (29)
	$\chi^2$	2.882(4)			
	<b>만 5세반</b>	39.0	24.0	37.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2	22.5	42.3	100.0 (71)
	외벌이	48.3	27.6	24.1	100.0 (29)
	$\chi^2$	2.946(2)			
	이용함	16.7	27.8	55.6	100.0 (18)
유연 근무제 이용	미이용	39.1	21.7	39.1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40.6	18.8	40.6	100.0 (32)
	$\chi^2$	3.349(4)			
	이용함	25.9	18.5	55.6	100.0 (27)
재택근무 이용	미이용	43.8	18.8	37.5	100.0 (16)
	제도없음+비해당	36.7	26.7	36.7	100.0 (30)
	$\chi^2$	2.888(4)			

\*  $p < .05$ .

■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했던 만 2세반 영아 부모 67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본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22.4%, 민간 육아도우미 4.5%, 자녀의 아버지, 친인척, 아이돌보미, 기타가 각각 1.5% 순으로 나타남.

- ◆ 외벌이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는 자녀의 어머니 54.2%, 조부모 31.3% 순임.
- ◆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유연근무제에 비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각각 60.0%, 6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연근무제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음. 한편 재택근무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 ◆ 만 5세반 유아 부모(63명)의 경우, 어머니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 여부, 유연근무제 이용, 재택근무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표 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돌보미	기타	계(명)
만 2세반	67.2	22.4	4.5	1.5	1.5	1.5	1.5	100.0 (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2	31.3	6.3	2.1	2.1	2.1	100.0 (48)
	외벌이	100.0	0.0	0.0	0.0	0.0	0.0	100.0 (19)
	$\chi^2$	12.966(6)*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60.0	0.0	20.0	0.0	0.0	20.0	100.0 (5)
	미이용	47.8	52.2	0.0	0.0	0.0	0.0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63.6	13.6	9.1	4.5	4.5	0.0	100.0 (22)
$\chi^2$	23.933(12)*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2.6	31.6	5.3	0.0	0.0	5.3	100.0 (19)
	미이용	42.9	50.0	7.1	0.0	0.0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70.6	11.8	5.9	5.9	5.9	0.0	100.0 (17)
$\chi^2$	12.077(12)							
만 5세반	82.5	12.7	-	3.2	-	-	1.6	100.0 (63)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 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	계(명)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6	17.1	-	4.9	-	-	2.4	100.0 (41)
	외벌이	95.5	4.5	-	0.0	-	-	0.0	100.0 (22)
	$\chi^2$					4.062(3)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75.0	12.5	-	0.0	-	-	12.5	100.0 (8)
	미이용	57.1	28.6	-	14.3	-	-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89.5	10.5	-	0.0	-	-	0.0	100.0 (19)
	$\chi^2$					10.756(6)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75.0	16.7	-	0.0	-	-	8.3	100.0 (12)
	미이용	60.0	30.0	-	10.0	-	-	0.0	100.0 (10)
	제도없음+비해당	84.2	10.5	-	5.3	-	-	0.0	100.0 (19)
	$\chi^2$					5.511(6)			

\*  $p < .05$ .

■ 팬데믹 기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음과 같음.

- ◆ 만 2세반 영아의 부모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 모두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64.0%, 71.0%로 높았음.

〈표 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단위 : %(명)

구분	이용한적 있음	이용한적 없음	계(명)
만 2세반	36.0	64.0	100.0 (100)
만 5세반	29.0	71.0	100.0 (100)

■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세반 영아의 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91.7%로 가장 높았음.

- ◆ 그 밖의 응답으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7.8%, 민간 육아도우미 19.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5.6% 순으로 나타남.
- ◆ 만 5세반 유아 부모(29명)도 조부모의 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음.

〈표 7〉 이용한 개별돌봄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명)

만 2세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민간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명
만 2세반	91.7	27.8	19.4	5.6	(36)
만 5세반	82.8	24.1	10.3	6.9	(29)

### 3 영유아 이용 기관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변화

- 교사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음.

〈표 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구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수 (점)	계(명)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2.5	57.5	40.0	3.38	100.0 (40)

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음.

-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인 방역 22.5%, 기타 17.5%, 인력 부족 15.0% 순이었음.

〈표 9〉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주기적인 방역	인력 부족	기타	긴급돌봄 경험 없음	계(명)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37.5	22.5	15.0	17.5	7.5	100.0 (40)

-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평소 행동을 토대로 어린이집 적응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교사 응답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4개 하위요인(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파악하였는데,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임.
  - ◆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10〉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사회정서적응	3.47	0.95	(100)
또래적응	3.38	1.01	(100)
자아적응	3.61	1.02	(100)
일과적응	3.62	0.93	(100)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남.

〈표 11〉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점수 (표준편차)	계(명)
놀이상호작용	4.2	8.1	66.6	21.1	3.05(0.68)	100.0 (100)
놀이방해	44.2	20.1	32.1	3.6	1.81(0.86)	100.0 (100)
놀이단절	56.0	29.6	13.5	0.9	1.59(0.75)	100.0 (100)

## 4

##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 비교

## 가.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

- 발달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5점 척도)는 3.05~3.39점으로 분포됨.
- ◆ 사회성 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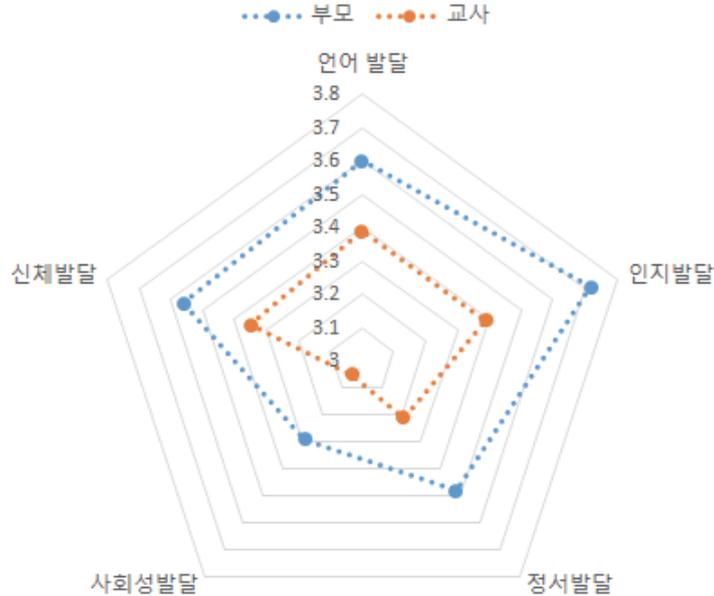
〈표 1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부모/교사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평균 점수	계(명)	t
언어 발달	부모	1.0	16.0	28.0	32.0	23.0	3.60	100.0 (100)
	교사	4.0	17.0	31.0	32.0	16.0	3.39	100.0 (100)
인지 발달	부모	-	3.0	39.0	41.0	17.0	3.72	100.0 (100)
	교사	1.0	10.0	48.0	31.0	10.0	3.39	100.0 (100)
정서 발달	부모	-	7.0	47.0	37.0	9.0	3.48	100.0 (100)
	교사	-	15.0	58.0	18.0	9.0	3.21	100.0 (100)
사회성 발달	부모	1.0	16.0	45.0	29.0	9.0	3.29	100.0 (100)
	교사	1.0	21.0	57.0	14.0	7.0	3.05	100.0 (100)
신체 발달	부모	1.0	8.0	40.0	36.0	15.0	3.56	100.0 (100)
	교사	2.0	11.0	51.0	22.0	14.0	3.35	100.0 (100)

\*  $p < .05$ , \*\*  $p < .01$

[그림 1]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하위요인별로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4점 척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부모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3.05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2.98점임.
  - ◆ 교사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82점이었고,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96점으로 조사됨.
  -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평정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점으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평가: 부모/교사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
전체	부모	3.01	0.78	(100)	4.581***
	교사	2.90	0.79	(100)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3.05	0.65	(100)	7.600***
	교사	2.82	0.64	(100)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2.98	0.85	(100)	0.859
	교사	2.96	0.85	(100)	

\*\*\*  $p < .001$ .

#### 나.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정서조절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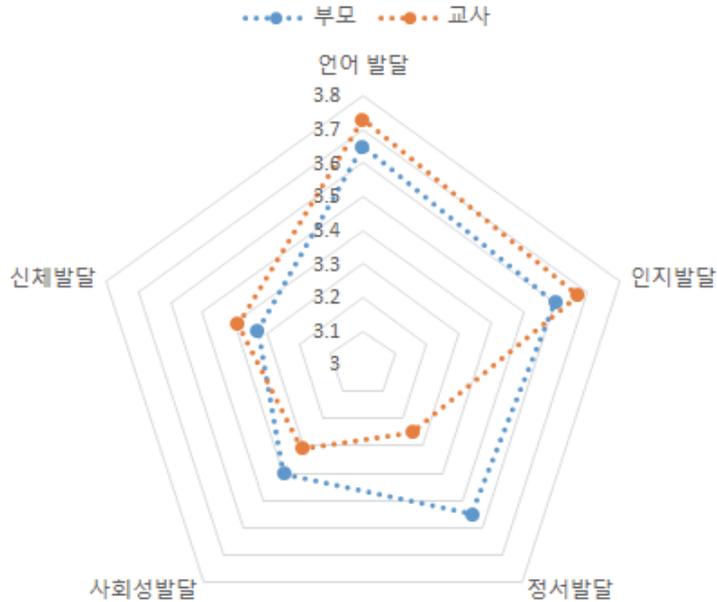
- 만 5세반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5점 척도) 중 언어 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지 발달 3.67점, 신체 발달 3.39점, 사회성 발달 3.31점 순이었으며, 정서 발달이 3.25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함.
  - ◆ 반면 부모는 3.33점~3.6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언어 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음.
  -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정서 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14〉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부모/교사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계(명)	평균 점수	t
언어 발달	부모	1.0	11.0	29.0	40.0	19.0	100.0 (100)	3.65	-0.577
	교사	2.0	6.0	38.0	25.0	29.0	100.0 (100)	3.73	
인지 발달	부모	-	5.0	41.0	43.0	11.0	100.0 (100)	3.60	-0.561
	교사	2.0	9.0	32.0	34.0	23.0	100.0 (100)	3.67	
정서 발달	부모	-	2.0	52.0	35.0	11.0	100.0 (100)	3.55	2.731**
	교사	3.0	9.0	55.0	26.0	7.0	100.0 (100)	3.25	
사회성 발달	부모	1.0	12.0	43.0	34.0	10.0	100.0 (100)	3.40	0.696
	교사	5.0	10.0	44.0	31.0	10.0	100.0 (100)	3.31	
신체 발달	부모	2.0	12.0	48.0	27.0	11.0	100.0 (100)	3.33	-0.463
	교사	2.0	10.0	50.0	23.0	15.0	100.0 (100)	3.39	

\*\*  $p < .01$

[그림 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 만 5세반 교사들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적응적 정서조절은 4점 척도에 2.95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은 3.29점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 반면 부모가 평가한 정서조절 점수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이 3.23점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정서조절에 대한 인식도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점)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점으로 부모(3.2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15〉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평가: 부모/교사

					단위 : 점(명)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부모	(100)	3.18	0.69	0.535
	교사	(100)	3.17	0.82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100)	3.09	0.55	4.566***
	교사	(100)	2.95	0.72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100)	3.23	0.75	-2.188*
	교사	(100)	3.29	0.85	

\*  $p < .05$ , \*\*\*  $p < .001$ .

## 5 제언

-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결과,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교육에 대한 기대는 실제적인 교육 지원으로 이어져서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진로 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입시 정보 수집,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성적 관리,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등 학업 지원 활동으로 나타남(김경근, 2005; 김경근, 강영혜, 2005; 김기석, 2005).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부모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조건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김경희, 황혜정, 1998; 박응임, 1988; 오혜진, 주경란, 2004).
-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편형 체크리스트(앱)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고, 기관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영유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비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데에 적합할 수 있음.
-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지연보다는 정서발달 측면에서 장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보다 쉽고, 간편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 체크리스트(앱)을 통해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영유아의 교사와 원장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영유아의 기관 내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영유아의 기관(시설)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담임교사와 원장임.
  - ◆ 팬데믹 이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와 우려가 많은 상황이나 자녀의 발달에 대한 교사나 원장의 안내에도 인정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상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모 상담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음.
  - ◆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은 이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 이후보다 영향력이 크고, 탄력성도 높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영유아 교사와 원장의 역량은 조기 선별을 위한 기초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 참고 문헌 |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강영혜(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사회학회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23-747.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7.
- 김기석(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현(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9,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9-61.
-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응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신영(2021).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 1-20.
- 오혜진, 주경란(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4.
- 질병관리청(2021). *간행물/통계*. www.kcdc.go.kr에서 2022. 6. 17. 인출.
-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 17(2), 29-46.

-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